

# “영남 쓸림 ‘삼성 총장 추천제’ 즉각 철회하라”

### 추천인원 배정 균형감·형평성 상실... 지역대학·정치권 반발 전남대·광주시·야권 등 “지방대학 줄세우기·지역차별” 성토

삼성그룹의 대학총장 추천제 인원 할당이 영남 쓸림현상이 두드러진다는 지적(광주일보 28일자 1면)에 대해 지역 대학과 정치권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지병문 전남대 총장은 27일 자체 대책 회의를 가진 뒤, 성명을 통해 “삼성그룹의 신입사원 총장추천 인원 배정이 균형감과 형평성을 상실한 만큼 추천제도를 즉각 폐지해야 한다”면서 “특히 삼성이 배정한 인원이 지역별로 두 배 이상 차이 나는 것은 명백한 지역차별이다”고 주장했다.

지 총장은 또 “삼성은 이번 인원 배정을 통해 새로운 대학 줄세우기의 결과를 초래했고, 지방대 육성과 지역균형 발전이라는 국가적 과제에 역행했다”고 지적했다.

강은태 광주시장은 이날 확대간부 회의에서 이와 관련, “배려와 균형, 특히 사회 약자에 대한 공생정신이 많이 부족하다”며 “삼성에 지역대학을 좀 더 고려해 달라고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강 시장은 “삼성이 광주에 가전사업부를 두고 지역경제에 공헌한 데

대해 시장으로서 감사드린다”면서 “사회공헌을 많이 하는 삼성이 왜 이렇게 (대학총장 추천제를) 불균형하게 했을까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민주당 이용섭 의원이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 인재육성에 관한 법률 통과와 각종 토론회를 통해 지방대학 출신의 취업 확대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삼성의 계획은 되레 지역의 균형 인재육성과 무관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유감을 표시했다.

이 의원은 이어 “삼성은 세계적인

기업답게 인재육성에 대한 더욱 세심하고 배려 있는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새정치추진위원회 운영권 공동위원장도 이날 성명을 내고 “삼성그룹의 대학총장 추천제는 차별을 극대화하는 비합리적 제도”라며 “학벌과 스펙 중심의 현행 채용제도의 관행을 깨고 나아가 지역별 채용 불균형을 타파하고 우수한 지역인재를 고루 채용할 수 있는 채용기준의 근본 취지에 부합하도록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광주시의회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삼성그룹은 대학별 추천인원 할당 계획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시의회는 “호남 소외의 지역차별이 정부의 정책과 인사에 이어 사

회 전 분야로 공공연히 확산하고 있는 반증에 심각한 우려를 표시한다”며 합리적인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도 이날 삼성의 대학총장 추천제에 대해 “대학 서열화를 부추긴다”며 일제히 비판했다.

한편, 광주·전남지역 대학과 한국 대학신문 등에 따르면 삼성그룹의 올해 대학 총장 추천 할당 인원은 광주·전남·전북의 경우 전남대 40명, 전북대 30명, 조선대 12명, 목포대·호남대 각 10명, 광주대·동신대 각 8명 등에 그쳤다. 반면 영남은 경북대 100명, 부산대 90명, 영남·부경대 각 45명, 동아대 25명, 창원대 12명 등이었다.

/채희종기자 chae@·박진표기자 lucky@



## AI 방역·살처분 투입인력 불량 방역복 “불안”

조류인플루엔자(AI) 방역과 살처분 분야에 동원된 공무원들에게 지급된 보호복이 쉽게 찢어지는 등 불량률이 많아 곳곳에서 불만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AI로 인한 인체감염 사례가 한 건도 없다는 정부 발표에도 보호장비가 부실해 AI 발병 현장에서 일을 해야 하는 관계자들의 불안만 커지고 있다.

전남도는 27일 “공무원과 군인 등 280여명을 동원, 나주와 영암, 해남 등 AI가 발병 농가 등 3곳의 반경 3km 안에 있는 8개 농장 닭과 오리 22만여 마리를 예방적 차원에서 살처분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작업에 동원된 일부 직원들은 보호복의 지퍼가 잠기지 않거나 벌어지고, 방진 마스크의 코 고정핀이 떨어져 나가는 등 보호장비에 불량이 많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이처럼 불량률이 많아 이날 동원된 사람들 2~3개씩 보호 장비를 써야

했다.

전남도 한 직원은 “AI 방역에 동원된 사람들은 독감 예방접종을 하거나 타이플루를 복용하고 현장에 투입됐는데 정작 보호 장비가 부실해 제대로 일도 못했다”고 말했다.

이는 보호 장비를 구입한 일선 시·군이 저가 구매를 했기 때문으로 알려지고 있다. 프랑스와 독일 등지에서 생산된 보호 장비에 비해 값이 싼 국내 중소기업 제품은 부직포 등이 쉽게 찢어지고 지퍼가 제대로 잠기지 않는 경우도 잦다.

현재 전남지역에서 사용하는 개인 보호구 세트는 일회용 보호복 1벌과, 마스크, 고글, 라텍스 장갑, 덧신으로 구성돼 있는데 구입 가격은 1만원을 넘지 않는다.

전남도는 현재 이 보호 장비가 일선 시군에 50만개 가량 보급돼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오광욱기자 kroh@kwangju.co.kr

## 재정운영 제대로 못한 지자체 정부교부세 감액

여주시 등 광주·전남 6곳 15억7000만원 삭감  
광주시 등 건전운영 지자체 109곳엔 인센티브

가득이나 재정여건이 열악한 광주·전남지역 지자체 중 6곳이 지난해 재정운영을 제대로 못했다고 올해 교부세 수납액이 깎였다.

안전행정부는 27일 “재정을 부적절하게 운영했다가 감사원과 정부합동 감사 등에서 지적을 받은 98개 지자체에 지원할 올해 교부세 중 180억원을 삭감했다”고 밝혔다.

올해 국가에서 지방재정조정 및 지방재원 확보를 목적으로 지방자치

단체에 주는 교부세는 총 35조7000억원이다.

교부세 감액 사유별로는 수입징수태만이 93억원, 법령위반 과다지출이 46억원, 투융자심사 미이행이 41억원 순이다.

광주·전남에서는 6개 지자체의 교부세 15억7000만원이 삭감됐다.

전국에서 교부세를 가장 많이 깎인 지자체는 경기 용인시로 모두 35억1500만원이 삭감됐으며, 여주시는

신규투자 사업인 해양테마펜션단지 조성 사업을 하면서 정부의 지방재정 투융자심사 절차를 무시해 전국에서 5번째로 많은 12억원의 교부세가 삭감됐다.

광주에서는 유일하게 서구청이 의료기관에 대한 부담이득금 징수 업무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가 3300만원의 교부세가 깎였으며, 전남에서는 여주시를 비롯한 전남도 1억7400만원, 목포시 1억1200만원, 화순군

2900만원, 해남군 2200만원 5개 지자체의 교부세가 삭감됐다.

반면 안행부는 재정을 건전하게 운영한 지자체 109곳에는 인센티브로 139억원을 줬다.

재정운영을 건전하게 해 인센티브를 가장 많이 받은 지자체는 울산시(9억6000만원)이며, 광주시는 예산 집행률을 높이고, 지방세 체납추소 등에 기여한 점을 인정받아 전국에서 6번째로 많은 5억원의 인센티브를 받

았다. 광주 동구와 남구 각 2500만원을 비롯한 전남 광양시(3000만원), 고흥군(2억3000만원), 보성군(2억원), 장흥군(5000만원), 강진군(2억원) 등도 교부세를 추가로 받았다.

이 외에도 교부세가 깎인 광주·전남 지자체 중 전남도(3000만원)와 목포시(3억원), 여주시(3000만원) 등 3곳은 일정 영역에서 재정 업무를 잘한 점이 인정돼 인센티브를 받았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 亞문화개 발원, 기타 공공기관으로 지정

2015년 개관할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전시 콘텐츠 제작과 운영을 맡은 아시아문화개발원이 기타 공공기관으로 지정됐다.

27일 아시아문화개발원에 따르면 지난 24일 기획재정부 주최로 열린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에서 아시아문화개발원이 기타 공공기관으로 지정됐다.

공공기관은 ‘정부가 출자했거나 정부 재정지원을 받아 설립, 운영되는 기관’으로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으로 나뉜다.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으로 지정되면 경영평가와 이사 등 임원의 임면, 예산 편성 등 경영지침에 대해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다.

기타 공공기관은 경영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경영공시, 고객 만족도 조사 등의 의무사항을 지켜야 한다.

아시아문화개발원은 문화체육관광부가 2011년에 설립한 특수법인으로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을 채플 콘텐츠 개발 등 업무를 맡고 있다.

/윤영기기자 penfoot@

인터넷에서 만나는 **광주일보**  
[www.kwangju.co.kr](http://www.kwangju.co.kr)

### 한국 최초 우주발사체 나로호 발사 성공 1주년 기념식 & 심포지엄

27일 오전 서울 강남구 역삼동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에서 열린 ‘나로호 발사 성공 1주년 기념식’에서 이상목 미래창조과학부 차관(왼쪽에서 여섯번째), 김승조 항공우주연구원장(왼쪽에서 여덟번째)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축하떡을 자르고 있다.

/연합뉴스

## “철새 먹이주기 금지로 오히려 AI 확산” 환경운동연, 굶주린 철새 분산이동 초래

환경운동연합은 27일 정부의 조류인플루엔자(AI) 차단 대책 중 ‘야생 조류 먹이주기 금지’ 조치가 오히려 AI를 전국으로 확산시킬 우려가 있다며 먹이주기를 재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순천만과 동립저수지, 주남저수지 등 철새 도래지를 모니터링 한 결과 먹이주기 중단 조치로 굶주린 철새들이 먹이를 찾아 여러 지역으로 분산이동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철새들이 전국적으로

이동하면 AI 바이러스 확산과 다른 조류의 감염 가능성이 높아진다”며 “뿐만 아니라 철새들이 굶주린 상태로 계속 이동할 경우 체력이 떨어져 AI에 대한 내성이 약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야생철새에게 제한적이고 안전한 먹이주기를 재개해 다른 지역으로의 이동을 줄여야 한다”면서 “영양을 제공해 발병을 줄이고 자가 치유력을 높일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정렬기자 halo@kwangju.co.kr

# 老안시려 노안교정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규정 제 131228-총-52297호

1566-9988  
신세계백화점 대각선 맞은편 눈모양빌딩을 찾으세요

전문의사  
신세계백화점  
신세계백화점  
전문의사

백은광주안과 의원

## 높은 대출금리의 벽 앞으로의 금융, 실험이 바뀝니다.

대출한도 최대 25억원

• 아파트 / 상가 / 원룸 / 나대지  
보증금 / 차량 등 모든 담보가능!

• 특례보증 / 햇살론 대출지원!

• 신용대출 - 직장인 / 자영업자 우대!

### 광주원광신협

| 공동본점 | 227-4474  
| 금호지점 | 383-4474  
| 홍암지점 | 653-4474

## 혈당조절 때문에 걱정되시죠?

유인메디카 식후혈당 상승억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고시형 건강기능식품 **글리코엔(N) 골드**

식후혈당 상승억제에 도움을 줄 수 있음  
고시형 건강기능식품 식품입니다  
당의 흡수를 억제시켜 Glucose를 조절합니다

식후 2캡슐씩 하루 2번으로 혈당조절 OK!!  
KISA

### 식후 혈당상승 억제!!

01 식후혈당상승억제에 도움을 주어 혈당조절이 잘 되지 않을 때 혈당조절을 개선시켜줍니다.

02 기능성과 안전성을 인정받은 원료로 제조한 고시형 건강기능식품입니다.

03 (주)유인메디카에서 ‘혈당조절’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기 위해 정성된 마음으로 완성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전화주시면 책, 자료, 무료로 우송해 드립니다.

**djM NAVER** 백세생활건강 을 검색하세요  
☎ 1899-3975 H.P 010-3598-7080